

Ἡ Ὠὐρανὸς Ἰμποῖνρε 박사Ἐ 창세기Ἐ 세션 DἘ Cain

© 2024 Kenneth Mathew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세션, 동산 밖의 삶, 가인과 아벨, 창세기 4:1-26입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정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는 정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덴동산 밖으로 더 많이 나가서 불순종으로 인해 추방된 결과 인간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강도는 커집니다. 죄가 발생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격변적인 홍수를 일으키셔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출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사악함과 그것이 다음 세대를 낳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묘사하는 에피소드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이 있습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3장 15절은 미래의 구원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 장의 첫 구절에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와 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님의 도움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신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3장 15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벨은 양떼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는 수련인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를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4절의 대조를 주목하십시오. 아벨은 양 떼의 첫 새끼 중에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이 변색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제물을 볼 때, 하나는 왜 호의를 받고 다른 하나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가져왔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몇 가지 강력한 제안, 일반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동물 희생이라는 가장 좋은 제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그 구절을

과도하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설명된 희생 제도에 사용된 단어이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소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 심지어 요구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오경에 묘사된 희생 제사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mincha, mincha입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각 사람의 동기와 내면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동기는 예배 행위에서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것인 반면, 아벨의 행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분별되는지에 관해서는 땅의 열매 중 일부인 열매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반면에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일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기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레위의 제사 제도에서 기름 부분은 달콤한 부분이었으며 주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맏아들도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자녀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무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인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의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아담의 가족이 행한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벨의 회개와 계명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칭찬이자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의 끝인 26절의 후반부를 보면, 물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이름.

언어는 시작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전환이나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넓은 예배 행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가족의 삶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살해된 아벨을 대신할 셋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 족속을 통해서 그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구원자의 출현과 결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소개된 셋에 대해 말한 후 바로 이어서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일종의 미사 또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지금 5장 1절부터 5장 끝까지 족보에 의해 설명되어 있는 아담 셋의 후손인 셋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며, 우리는 분노가 종종 Owen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분노가 항상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가 종종 뒤따르는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는 사람이 너무도 쓰라린 분노를 가질 수 있어서 그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죄를 짓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강박적이 되어 매우 불행하게도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풀린 얼굴에 대해 사용된 언어는, 그리고 다시 6절에서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망이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나 윗사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내려다보거나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질투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수확이 있으며, 여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7절에 보면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는 회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가인님. 그러면 열정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욕망과 의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생계에 대한 좋은 욕망, 성관계에 대한 좋은 욕망, 공동체 생활에 대한 좋은 욕망, 일과 성취에 대한 좋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자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자를 자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피자 커터를 위한 것입니다.

또는 수건을 자르고 화장실에 수건을 놓기 위해 피자 절단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에 대해 뜻하시는 것과 그것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이러한 욕망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당신의 욕망을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당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욕망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이며 현실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초현실적이고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형제에 대한 질투와 시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승인을 원했던 가인의 사례에서 예시된 것입니다. 아마도 배후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실망했기 때문에 실망을 의미했을 것이라는 나의 추측이다.

그래서 8절에서 가인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형을 설득하여 그의 부모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를 쫓아내게 하고 그를 죽입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가인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살인을 계획한 경우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의 결과가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9장에 창조 규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가장 엄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대한 공격입니다. 살인적인 반역과 가족과 사회에 대한 배신을 자유롭게 계속하는 살인자가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 공동체의 결속력의 붕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출산과 상속의 사슬이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살인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이는 신약성서의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가인을 가리키실 것이며, 가인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가인에게서도 회개의 반응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인 측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나? 그리고 대답은 '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친족적 사고방식 및 세계관의 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의 공동체 맥락에서 여러분은 가족, 씨족, 부족, 이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우리가 창세기를 진행함에 따라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공동 언약자라는 언약 관계가 있으며, 또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제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 대답은 물론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의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벨에 대한 이 배신적인 배신 속에서도 이 죄인, 이 살인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행위를 제공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인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가인에게 네가 저주를 받아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중요한 응답이므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저주는 3장에서처럼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 즉 육지와 동물의 영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제시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창세기 기록뿐만 아니라 율법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될 내용, 즉 동물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관련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시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안식일 준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본토인의 일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나 외국인, 동물의 일의 연속을 의미했습니다. 동물을 주시고, 동물의 생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소중한 모든 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땅에 관하여 우리는 또한 그것이 가인의 생명을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계는 땅의 생산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담과 관련된 형벌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살인죄로 인해 형벌이 더욱 가혹해진다.

그리고 살인으로 인해 그는 사실상 추방을 당하고 그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유배와 추방은 카인의 첫 조상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가인의 반응은 뭔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인을 어떻게 읽고, 그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가 화해, 회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든 결과는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이 형벌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14절 : 가인이 이르되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에 가려진 가인은 타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땅과 가족과 가족 떼에게 축복과 풍성함을 주셔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에서 쉬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즉, 그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혈통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혈통은 가인의 형벌을 받는데 만일 가인을 죽이거나 가인과 가까운 자를 죽이면 그 사람의 가문의 기업과 혈통이 끊어지고 파멸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나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형벌이므로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고 간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기되는 일반적인 질문은 내러티브에 비추어 볼 때 주변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글썄요, 초기에 이러한 초기 가부장적 인물들의 수명은 꽤 길고, 급속히 많은 자손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5장을 보면 4절에 셋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셋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은 셋의 죽은 형제인 무죄한 셋을 죽인 가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시작하는 자손의 탄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과 출산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보다 앞서 가인에게 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표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보존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목적을 표시해 줍니다.

가인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인간 사회 발전 초기에 강력한 출산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에서 라멕의 후손이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술과 과학의 창시자와 기업가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은혜의 행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인 편에 회개하는 영이 있었다는 당신의 생각에 대한 논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경우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창세기 초반부 전체에 걸쳐 사람들을 동쪽으로 몰아가는 추방의 방향으로 동쪽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남자와 여자가 추방된 것도 동방으로의 추방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은 주석가들이 정원에 대한 묘사가 장막의 장식에 관해 묘사된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서 일어나는 봉사과 일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암시는 성막이 동산을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고 열두 지파가 자신들의 기준을 세웠던 이 천막 안의 성막에도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막과 그들의 거처를 삼아 그들 중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아니면 이것을 뒤집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이웃에 거하도록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막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동쪽으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들의 사악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적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인 지리 신학의 일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인의 가족이 죄를 물려받았다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삶,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된 이 궤적은 그 수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계보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었다는 것을 듣습니다(19절). 그가 두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모세 공동체의 창세기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라반의 누이들과 결혼한 야곱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는 특히 자매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라멕은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다처제로 지명되는데, 두 아내 아다와 아실라의 운율과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자손과 직업을 언급한 후, 22절에 보면 아실라에게도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청동과 철로 온갖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기술적 이점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이 아니라 악을 위해 사용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멕에게 이러한 무기를 제공한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이 청년을 죽인 것에 대해 시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시입니다. 시에 관해서라면 평판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병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의 시작 부분에 바로 이 예가 있습니다. 아다와 아실라는 내 말을 들었고, 이어서 라멕의 아내들이 반복하여 아다와 아실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미래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살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했는가? 글썄요, 24절에서 가인이 이 살인을 묘사하는 방식은 그의 반응이 그가 경험한 상처와 같지도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의로운 대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동등한 대응과 관련된 법이 있는 lex talionis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복수심으로, 아마도 이성과 동기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분노로 인해 그것을 초과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 작동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선택한 다음 평행 단어를 선택합니다. 정확히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죽인 사람이 사실은 더 강한 라멕에게 복종하고 취약한 젊은 남자였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가인과 그의 평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일곱 번 복수했다면 라멕은 77번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가인 족속의 혈통에 대해 매우 슬픈 해설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인으로 수확되고 있는 죄의 심각성과 강도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일부다처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살해된 아벨을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제공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주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유희입니다. 또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Seth가 출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인 족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의 탄생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셋에게 돌립니다. 이제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해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많은 부부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당신의 경우이거나 당신의 가족 중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경우라고 해서 그들이 저주 아래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독신 생활 방식은 사도 바울이 교회 내 공동체를 위해 더 좋게 생각한 생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독신이고 결혼하여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유롭고 부지런히. 부부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입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독신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 장의 끝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예배와 헌신의 꽃피움입니다.

여호와와 이름, 곧 여호와와 언약의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름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학이 우리에게 언어 이름이 존재를 나타낸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것이 주로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후반부에 기도와 예배를 위해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살인을 저지른 가인과 가인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이어지는 셋의 짧은 탄생이나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관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 사이에 상당한 대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장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음 섹션을 소개하는 머리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1절에서 시작하여 32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함께 작동하는 두 문단이 있고 이것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족보를 읽고 나레이션으로 돌아가서 독자가 홍수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다음 표제가 있는데, 노아를 소개하는 표제입니다. 따라서 번역은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이며 구원자로서 그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이 병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장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대조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 표면으로 나타나서 패턴으로 계속될 일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는 죄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풍요로움은 그분의 성품,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성품에서 축복하시는 성품에서, 그분의 성품에서 사랑하시는 성품에서, 그분의 성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적인 죄성과 사악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억제하는 형벌이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억제하고 제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가족을 보존하는 한 부분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패턴은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5장과 32절의 족보에 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산 밖의 삶을 하나로 모으는 메시지는 동산의 죄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보는 살인이 될 것이며 모든 창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최악된 타락의 폭과 심각성이 진행되어 홍수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와 가인의 이전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어 축복을 받을 혈통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한 아벨의 의로운 아벨의 후계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이끄실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구원자 곧 노아를 세우실 의로운 혈통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의 아들 셈이 포함될 것이며, 새 종족의 창조를 통해 모든 종족의 구원자 곧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 족속과 악한 혈통 사이에 투쟁이 있는데, 그 결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주 하나님께 순종과 예배와 충성을 실천하는 의로운 후손으로 인식되고 이해됩니다.

그러면 5장의 족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기록된 기록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단어는 실제로 단어장, 즉 어느 초기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이며 창세기의 저자가 차용한 설명입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 관한 에덴동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1장 26절의 분명한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1장 27절이며, 앞으로 있을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이제 이것은 새로운 것이 되었으며, 그는 그들을 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명은 존재나 지위를 명명하는 사람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이 붙은 사람의 신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의 경우에는 그의 임재와 주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구조가 규칙적인 구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예측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아버지의 연수, 그 다음에는 출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손이 태어난 후의 연수를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과 딸을 회상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었습니다.

이 족보를 추적해 보면,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족보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족보는 상속의 전체적인 개념과 하나님께서 전체 민족에게, 그리고 상속에 참여하는 각 가족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장자관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종족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통해서 영속된다는 개념입니다.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3절에서 아담이 130세를 살고 자기와 같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태어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에서 자손으로,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후손의 이미지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셋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 하며, 그렇게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는 죽었습니다. 각 지점에서 그가 죽으셨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죽음을 초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히려 설득력 있게 상기시켜 줍니다. 동산에서 먹었을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모든 후계자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밖의 가족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남자와 여자의 심각한 상태를 묘사할 때 원죄가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화해를 이루셔야 합니다. 다음에 6회차에 다시 방문하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세션, 동산 밖의 삶, 가인과 아벨, 창세기 4:1-26입니다.